

전북 2개 선거구 올드보이·현역 의원 '신경전'

〈전주병·정읍고창〉

〈정동영·유성엽〉

〈김성주·윤준병〉

전주병 김성주 "과거 대 미래·적폐 대 혁신 싸움" vs 정동영 "전주시민에 낙제점" 정읍·고창 윤준병, 유성엽 향해 "내부 총질, 변경 예상 선거구서 선거운동" 비난

전북 지역 2개 선거구에서 올드보이와 현 국회의원들 간 날 선 신경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주병과 정읍·고창 선거구다.

전주병에서는 서울대 국사학과 선후배이자 전·현직 의원인 정동영 예비후보와 김성주 의원의 3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고, 정읍·고창에서는 동향·고교·대학 동기동창생이자 전·현직 의원인 유성엽 예비후보와 윤준병 의원이 맞붙는다.

먼저, 김성주 의원은 4일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내 2인 경선을 '과거 대 미래의 싸움, 적폐 대 혁신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여러 번의 탈당과 잦은 당적 변경으로 얼룩진 낡은 구태정치는 장경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결국 사라질 것"이라며 "선거마다 당적을 바꿔가며 나오는 출마전문가와 전주와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책전문가와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병 경선은 적폐 대 혁신의 싸움이자 분열과 배신의 과거를 심판하는 마지막 승부"라면서 "민주당에서 정리하지 못한 올드보이 청산을 전북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북당원 동지들의 힘을 모아 김성주가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경쟁자인 유성엽 예비후보를 향해 비판을 쏟아부었다.

윤 의원은 이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히 중진이라는 분들이 말로는 10석을 사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딴 짓을 해 힘이 분산되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며 "내부 총질을 하고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올드보이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유 후보를 비난했다.

이어 "올드보이들이 주역이던 시절

전북의 의석수로 이야기하면 전국에서 7석이 늘었지만 당시 전북은 11석에서 10석으로 줄어든 상태"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 반성이 없고 오히려 지금 이뤄지는 내용에 비판하는 데, 이런 자격 자체가 없다. 이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드보이들도 현역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지난 4년 간 전북 현역의원은 전주 덕진의 대변자 역할이라는 임무에 대해 전주시민이 낙제점을 준 것"이라며 "이런 것이 바로 정동영을 다시 불러냈다"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지난 4년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에 선택이 남은 것"이라며 "내가 앞장서서 지켰노라고 한 의원(김성주)이 앞장서서 찬성해야 함에도 기권을 했다. 이는 초동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 10석 사수'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민주 전북 의원들 "선거구 조정기준 개편을"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 관련 '한목소리'... "도민들과 정치권 도움으로 가능했어"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 의석수 10석 사수에는 도민들과 정치권의 도움이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선거구 조정 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성주·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10석을 반영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획정안 합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 힘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180만 도민, 500만 출향도민의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자치도의원들도 마음을 모아준 것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숨기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은 "원래 선관위의 획정 원안이 불공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안이었다"면서도 "(10석을 사수했지만) 완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에서

장수가 분리돼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안 의원은 "장수가 분리됐지만 무진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장수를 위해서 공약을 이행되더라도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앞으로 선거구조정에 대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등에서 인구수가 아닌 유권자 수로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변경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임종석 민주당 잔류... 새미래 "좌고우면 않고 직진하겠다"

"민주당 대체할 새로운 민주당 세우는 길로 나갈 것"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새미래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더불어민주당 잔류에 좌고우면 않고 직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에 따르면, 김종민 새미래 공동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대해 "각자 판단한 것이니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 세력의 확산을 위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길을 넓히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했지만 이제 더 이

상 좌고우면할 수 없어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미래가 임 전 실장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불이익을 받은 분들로 부터 여러 가지 제안과 의사 표명을 받으며 열린 자세로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라며 "새미래는 출범 취지로 민주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민주당을 세우는 그런 길로 뚜벅뚜벅 직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후 새미래 합류 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당에 잔류하는 쪽을 택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남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짧

은 글을 남겼다.

새미래는 임 전 실장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임 전 실장을 겨냥해 "사람인데 연락하겠지"라며 "단지 오늘 아침엔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새미래는 이날 책임위원회의에서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와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김건희·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방탄정치가 공고화하고 있다"고 이를 비판했다.

또한, 책임위원회의에서 22대 총선 인제로 박건복 예비역 육군 준장과 주찬미 예비역 육군 중령을 영입했다. /특별취재반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4일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비상진료대책 차질없이 해달라"

임상규 행정부지사, 남원의료원 방문 의료진 격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4일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남원의료원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남원의료원은 1921년 개원한 10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전북지역 30만 명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등 남원진료권 유일의 종합병원이자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먼저,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응급

실 운영과 분반, 투석 등 필수로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남원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 현황을 보고 받고 비상진료와 진료 시간 확대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지역의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국립의과전문대학원법 국회 통과"

민주 이환주 예비후보, 첫 공약... 공개 정책토론회도 제안

남원·장수·임실·순창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예비후보가 4일 첫번째 공약으로 '국립의과전문대학원법' 통과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에게 공개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립의과전문법이 완전히 잠자고 있다"며 "서남대가 폐교되고 나서 점차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아직도 대학 설립을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서남대)폐교 후에 국립의과전문법안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며 "국회 들어가면 국립의과전문법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첫번째 공약을 내건

취지를 밝혔다.

다른 후보자들을 향해 "지역의 선거 문화가 때가 되니 건전한 정책보다는 흑색선전과 상대비방이 횡행하고 있다"며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지 오래돼 유일하게 3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선거문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내가 시장 책임자 시절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실제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많이 퍼뜨려서 혼란에 빠져있다"며 "이런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예비후보들까지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남원·장수·임실·순창 선거구에 박희승 예비후보와 성준후 예비후보, 이환주 예비후보 간 3인 경선이 확정됐다. /특별취재반

"전주를 100만 광역도시로"

국립 전희재 예비후보, 전주병 출마 선언

국민의힘 전희재 예비후보가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병 출마를 선언했다.

2009년 전주덕진 재보궐선거와 2016년 전주갑에 이어 세 번째 총선 도전이다.

전 예비후보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안보,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향후 중앙과의 소통창구로서 전주를 100만 광역도시로 바꾸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주 완주 통합 △전주권 교통망 개선 △전주~김천간 철도 △전주~무주



고속도로 추진 △전주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개발 추진 △팔복동 공업단지 리모델링 △송천동 일대 교통망 개선 △전주시의버스터미널 현대화 등을 제시했다.

전희재 예비후보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전주공고, 전북대 철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22회 행시를 통해 국무총리 비서관, 장수군수, 진안군수,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자치도의회 5~14일 임시회

올해 첫 도정질문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는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407회 임시회를 열고 10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7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을 발의한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회 선임,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5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0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이어 '산림공익 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은 6일에는 서남이(전주9)·윤영숙(익산3)·박정희(군산3)·김정수(익산2)·임승식(정읍1) 의원이, 7일에는 김성수(고창1)·박용근(장수)·김동규(군산2)·윤수봉(완주1)·전용태(진안) 의원 등 이틀간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발의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27건)을 심사하고,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은 오는 14일 제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의회 임시회 개최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원시 예산결산 및 남비 사례 공개 조례안 △남원시 제1형 당노병 환자 지원 조례안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남원시 화확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시장이 제출한 안건 20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전평기 의장은 개회식에서 지난 2월 19일 우중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함께 국회 앞에서 남원 국립의과전문법안 통과와 설립을 위한 호소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의회에서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이투라 의원과 이대우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시대흐름에 맞는 지역축제 재정비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시작으로 5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규 의장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진안군의회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창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진안=우태만 기자